‘행복바라미 문화축전’ 온라인서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로 12일 비대면 영상행사 진행

BBS, BTN 유튜브 녹화영상 공개
올해 5천만 원 모금, 소외이웃 지원
주윤식 회장 “사회 공헌 적극 동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의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공연.

전통문화 대중화 및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되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온라인으로 문을 열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12월 12일 불교방송, BTN불교TV 유튜브를 통해 ‘2021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을 진행했다.

날마다좋은날은 12월 7일 전법회관에서 개막식 사전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방식으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진행하게 된 사유와 온라인 전개 의미 등을 설명했다.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주제로 진행됐다. 12일 온라인 개막식 1부는 행복바라미 의미를 샌드아트로 전하는 오프닝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영상을 통해 주윤식 이사장 환영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치사, 포교원장 범해 스님 격려사,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 손병선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이사장 축사가 이어졌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행복바라미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개막식 2부에서는 올해 10월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된 행복바라미 문화행사가 소개됐다. 2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보시 모연을 통한 나눔실천을 알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전국으로 확산된 보시와 나눔의 범국민 축제”라며 연말 연시 불자들의 활발한 자비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2부에서는 소을소리단의 전통국악 공연과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타악 공연, 국민멘토 방우정 교수의 ‘나눔 소통 화합’ 주제 힐링콘서트도 진행됐다.

주윤식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올해 교구신도회와 지역사찰이 중심이 돼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행복바라미는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소외이웃을 향한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행복바라미 모연액은 전액 모연된 지역의 소외이웃을 위해 회향된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이날 온라인 개막식과 함께 전국 300여 사찰에서 모금활동으로 전개된다.

현재 행복바라미 모연캠페인에서는 약 5000여 만원이 모금됐으며, 날마다좋은날 측은 2022년 2월 수혜자를 선별해 회향할 계획이다.

전국 53개 교정수용자 신심 담았다

중앙신도회, 〈불교성전〉 교정기관 손글씨 수상작 발표

최우수 부산교도소 여등 불자作
불교성전 3장 보살의길 필사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여등 불자의 손글씨.

전국 53개 교정교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과 마음으로 읽는 불교성전 손글씨 공모전’에 부산교도소 여등(법명) 불자의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김행규)가 주관하고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와 동시에 불교성전을 통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계획됐다. 공모전은 10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7개 교정시설로부터 119개 작품이 접수됐다.

중앙신도회는 11월 30일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5점, 입선 10점 등 총 17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교도소 여등 불자는 불교성전 제3장 보살의 길, 7절 ‘세상을 밝히는 지혜’ 중 일부를 붉은색 붓펜으로 필사했다. 마지막 장까지 흔들림 없는 정갈한 필체 속에서 엄청난 정성과 신심이 느껴진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불교성전 보급화와 동안거 비대면 수행정진을 위해 ‘2021 수행바라미 동안거 정진’을 불교성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불교성전 법공양 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심 증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희망 선물’입니다”

생명나눔, 영등포복지관서 캠페인
동참자들 “기증 약속 꼭 지키겠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9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 명의 인체조직기증은 10명에게 새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겨울 한파가 몰려온 12월 9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 1층 로비에 추위를 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의 의미와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나선 것.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테이블 2개를 설치해 부스를 만들고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증희망등록 신청 감소로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장기기증 대기 환자는 4만 명에 달하며, 하루 8명이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기관과 협력해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키로 하고 첫 홍보지로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았다.

“사후 얼마 이내에 기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희망등록을 하고 나서 가족들의 반대하면 취소할 수도 있나요?”

홍보부스를 지나던 종사자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장기기증에 대해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장기기증’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생명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후에는 자발적인 희망등록이 이어졌다. 장기기증은 대부분 뇌사상태일 때 가능하므로 실제 기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상 타인을 위해 마음을 나누는 것에 의미가 크다는 설명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복지관에서 가장 먼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김지웅 미래경영팀 과장은 “사후 화장이나 매장으로 없어질 몸의 일부가 생명이 간절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큰 망설임 없이 희망등록을 했다“며 “이왕이면 건강한 신체를 기증하는 것이 좋은 만큼, 술과 담배를 줄이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으며 말했다.

기증은 희망자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 신장과 간장, 췌장 등 장기 등과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조직, 그리고 안구(각막)로 나뉜다.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것도 희망자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희망등록 시에는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각 지자체별로 보건소 진료비와 주차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KEB하나은행 ‘바보의 나눔적금’ 가입시 연 0.5%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동국대 일산병원 이용시 진료비(비급여)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실 기증 시에는 장제비와 진료비 총 5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선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최종환 관장은 “장기기증 희망동록은 이식 대기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생명나눔운동이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캠페인 장소로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지목했다.

이도경 장기사업부장은 “올해 말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관을 중심으로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해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모아갈 것”이라며 “이식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가족의 반대도 만만찮아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높지만 의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7일, 소외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 2 · 3동 주민센터에서 ‘제8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를 개최하고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총 200개구에 라면 6000개와 김치 1600kg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물품은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정 나누기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수지와 팬클럽 ‘배꽃마을’에서 기부한 후원금으로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찾아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예비역 군승, 포교 활동 확대 노력”

예비역법사단, 12월 3일 총회 및 숭년회

30여 군포교 관계자 참석
신임단장 원명 스님 선출



예비역법사단은 총회 및 송년법회를 열었다.

예비역법사단(단장 법일)은 12월 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육해공군 예비역 선임법사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총회 및 송년회에는 법사단장 법일 스님(이양길 법사)을 비롯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등 스님들과 1기 군법사인 권기종 예비역 선임법사를 비롯한 30여 예비역 법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단장 법일 스님은 “군종활동을 함께 해 온 도반이자 동행자로서 이번 송년 행사를 통해 예비역법사단의 발전에 힘을 모아달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현역 법사 시절의 기쁨과 추억을 바탕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력을 세우자”고 당부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이날 예비역 군법사들을 조직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일 스님은 격려사에서 “470여 명에 달하는 예비역 군법사들이 있지만 이를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예비역 군법사이 지속해서 군포교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기종 예비역 선임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군법당 중 군승이 없는 법당이 많다. 외부에서 법사가 법회를 진행하는데 예비역 군법사들도 이런 법당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여 전법 포교를 활성화하자”고 당부했다.

예비역법사단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과 1기 군법사를 대표해 권기종 선임법사 등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송년회에 이어 총회에서는 해군 군법사 출신인 영주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송병욱 법사)이 차기 예비역법사단장으로 추대됐다.

원명 스님은 “새롭게 종단에서 군법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예비역법사단도 친목 수준을 넘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년회에는 지난 10월 11일 입적한 1기 군법사를 지낸 김봉식 예비역 군법사의 아들 김진환 동국대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장이 참여해 군종교구장으로 지낸 장례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총동문회장에 변대용 본부장

12월 4일 임시 총회서 선출
대불련 공동체 불사추진해
캠퍼스포교 협력사업 진행


변대용 신임 대불련총동문회장.

대불련총동문회 제30대 회장에 변대용(동국대 80학번, 사진) 불교TV 붓다회 본부장이 선출됐다.

대불련총동문회는 12월 4일 선학원 지하3층 만해홀에서 임시총회 및 송년법회를 열고 단독출마한 변대용 회장을 제30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했다. 변 회장은 20년차 대불련 중앙본부 조직부장을 지냈고, 불교신문 기자, BTN불교TV 보도국장, 한국불교기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BTN불교TV 붓다회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변 회장은 “총동문회장 출마는 대단한 원력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다. 땀과 열정을 바쳤던 대불련 공동체를 지키고 역량을 결집하여 후배들을 위해 회향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변 회장은 또 2023년 대불련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불련과 함께하는 대불련 공동체 불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변 회장은 끝으로 “재학생 없는 동문회는 존재할 수 없다. 대불련총동문회는 캠퍼스 포교에 나서 선후배가 함께 미래불교를 디자인하고, 포교불사를 실천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감사로 신석봉(전남대 74학번), 정성균(전북대 79학번), 노태훈(성균관대 81학번) 씨도 감사로 선출됐다.

송년법회에서는 이종수 순천대 불교학생회 지도교수의 ‘대학생 포교의 발상 전환’ 특강도 진행됐다. 또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출신 이아진 씨의 판소리 공연 ‘고난의 칼날에 서라’도 축하무대로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인도 네팔 순례기’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향번역상엔 ‘인식론 평석’
조계종, 12월 15일 시상식

각전 스님의 저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올해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제18회 불교출판문화상에 대상 〈인도 네팔 순례기〉를 비롯해 10권을 선정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대상작 〈인도 네팔 순례기〉는 선방에서 수행하는 각전 스님이 해제 철에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다녀온 인도 네팔의 성지 순례, 그 깨달음의 여정을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았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각전 스님은 39회 행정고시 합격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했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수상에는 〈엄마랑 아이 좋아〉(덕원 스님 지음, 박혜상 그림/ 불교신문사)와 〈붓다 연대기〉(이학종 지음/ 불광출판사)가 선정됐다. 또한 수향번역상에는 〈인식론 평석〉(다르마키르티 지음, 권서용 옮김/ 그린비) 붓다북학술상에 〈조선 불교사상사〉(김용태 지음/ 성균관대출판부)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한 보덕전법상에는 〈오르고 거닐며 느리게 보는 절집의 미학〉(김봉규 지음, 사진/ 담앤북스)가 이름을 올렸다.

입선에는 〈봉려관,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다〉(혜달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심검당 살구꽃〉(최명숙 지음/ 도반), 〈일본불교를 세운 고대 한국 승려들〉(이윤옥 지음/ 운주사), 〈중심〉(법인 스님 지음/ 김영사)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7일 ‘2021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를 개최하고 자비나눔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사회복지와 자비나눔으로 세상에 행복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복지 현장 곳곳을 누비는 불교계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자비나눔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2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21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를 개최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불교사회복지 발전 의지를 다졌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비롯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등 29명과 2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은호 기자